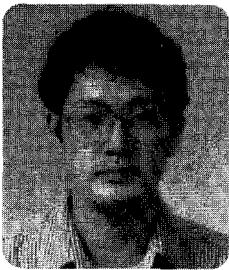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7)



임종태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목 차

- I. 서 론
- II. 발명진흥과 물산장려(김용관과 발명학회)
- III. 발명진흥에서 과학운동으로
- IV. 이화학연구기관 설립논의(상이한 과학기술관 및 근대화관의 표출)
- V. 과학운동의 전개와 변질
- VI. 요약과 결론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5) 김용관의 입장 조정 - 과학보급기관

이와 같이 대립되는 듯이 보이는 여러 이화학연구기관 설립안에 대하여 김용관은 어떠한 식으로든 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처해 있었다. 앞 절에서 김용관이 발명학회에 유입된 문화적 과학화 이념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음을 살펴 보았지만, 그가 자신의 것과는 다른 이화학연구기관 설립안에 대하여 취한 태도도 그와 유사하였다. 1934년 하반기부터, 현상윤과 김창제의 견해를 대폭 수용한 새로운 기관으로 '과학보급기관'의 설립을 새로이 제안했던 것이다. 김용관은 이 기관을 그자체로 과학대중화(김창제), 자연과학자 양성(현상윤), 발명장려(김용관과 발명가)를 모두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시하였다.¹²⁴⁾

하지만 그가 사회명사들의 문화적 과학화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물산장려운동적 발명진흥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이후 계속 주장한 전문적 연구기관도 실제로는 발명연구기관이었다. 예를 들어 「과학조선」 1935년 6월호에 실린 "과학의 위력"에서 김용관은 과학이 근대문명에 기여한 바를 논술한 뒤 '과학연구'의 진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그 실제 의미는 민족의 자립적인 공업진흥에 봉사할 응용연구, 즉

124) 김용관이 과학보급기관 설립을 처음 주장한 것은 1934년 4월 22일의 좌담회에서 이화학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토론이 유아무아되고 난 직후인 6월 27일, 28일 「동아일보」의 지면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과학보급기관의 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았고, 좀 더 충실한 설명을 담은 글은 이듬해에야 나타났다. 김용관, "과학보급기관을 설치하라", 「과학조선」 1935년 2월호, 21-22.

‘발명연구’였다.¹²⁵⁾ 즉, 김용관은 사회명사들을 발명진흥과 이화학연구원 설립 운동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과 계획을 그들의 성향에 맞춰 ‘과학’ 화, ‘과학’ 보급기관 등으로 변화시켰지만, 그 실제 내용은 여전히 발명 또는 기술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으로 그가 자신의 이념과 계획을 변화시킨 동기가 자신의 본래 계획을 유력한 사회명사들이 참여하는 더 큰 공간에서 그들의 지원 아래 이루려는 데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김용관의 표면적인 ‘과학’ 진흥론 속에 담긴 발명가적 편향은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이영진은 바로 김용관의 ‘과학의 위력’에 대한 비판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였는데,¹²⁶⁾ 그 주된 논지는 김용관이 ‘기술 편중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이영진에 따르면 과학은 기술적인 측면과 이론적 측면에서 인류 역사에 기여하여 온바, 기술적 측면에서는 산업의 발전과 생활의 편리화, 이론적 측면으로는 과학 이론의 철학화를 통해 사회, 인생,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케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김용관은 이론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그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였다. 김용관에게 과학이란 실상 산업이나 일상생활에 응용된 기술을 의미했고, “과학의 위력”이라는 글에서 김용관이 위력적인 과학의 예로 든 것도 ‘공중질소고정법’이라는 다분히 실용적인 기술이었다.

이영진은, 김용관과 같이 “정당한 과학적 지도 이론을 결한 기술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기술이 주는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김용관

이 말하는 과학의 실내용이 바로 실용적 기술, 또는 발명이었음을 간과해 내고 이러한 편향의 정정을 주장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김용관이 조선사회 전체를 향해 던졌던 화두, 즉 이화학연구원 설립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입장이 개진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는 이화학연구기관의 설립보다는 과학대중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 그것을 주로 서구 자연과학을 수용하는 기관으로 보았던 입장, 그것의 설립보다는 주로 일본측이 제공하고 있던 기존기관을 이용하자는 입장 등 서로 쉽게 타협하기 힘든 다양한 주장들이 김용관의 소규모 공업을 위한 발명연구기관 안과 대립하고 있었다. 1934년 하반기 이후 김용관이 비록 ‘과학보급기관’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견해를 통합하려 노력했지만, 그 절충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다. 1935년 과학보급기관 설립을 주장한 글 외에는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거론된 흔적은 없다.

결국 김용관은 발명학회-과학지식보급회의 체제를 이용하여 이화학연구원 설립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고 통일시키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물론 이화학연구기관의 설립이 과학운동 기간 동안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단지 이와 같은 의견 분열의 탓만은 아니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김용관과 그의 발명학회 동료들, 그리고 몇몇 유지를 제외한 대다수 사회명사들이 그것에 무관심했고, 더 나아가 민족 공업의 수준이 이의 설립을 지원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더 근

125) 김용관, ‘과학의 위력’,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14. 이 글은 다른 일간지에 실렸던 글을 게재한 것이었다.

126) 이영진, ‘과학과 조선김용관씨의 논문을 읽고’, 「조선중앙일보」 1935년 6월 8~13일.

본적인 원인이었다.¹²⁷⁾ 어떤 점에서는 이화학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아직 적다는 김창제의 주장이 더 현실적이었던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김용관 등 몇몇을 제외하면 과학운동에 참여한 대다수 인사들의 과학기술진흥론은 김창제, 현상윤, 윤주복 등이 보여주었던 과학기술의 보편적 힘에 대한 신뢰, 서구나 일본의 과학기술에 대한 동경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들 대다수가 물론 과학기술을 통한 '조선민족의 갱생'이라는 민족주의적 지향에는 동의했지만,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과학기술이란 그들이 극복하려 했던 민족의 현실에 깊게 뿌리박지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학기술관과 그에 바탕한 과학기술진흥론의 한계는 다음 절에서 살표 볼 1938년 이후의 군국주의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5. 과학운동의 전개와 변질

1) 1934년 하반기 이후 과학운동의 전개

앞서 살펴본 바대로 김용관과 발명학회 인사들이 역점을 둔 사업이었던 이화학연구기관의 설립은 그들의 의도대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기관 설립 운동의 실패가 곧 과학운동 전반의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1934년 과학데이의 성공적 개최의 여파를 몰아 사회의 커다란 호응을

받으면서 과학지식보급회가 설립된 이후 1936년까지 과학지식보급회와 발명학회는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과학지식보급회는 1934년 하반기와 1935년 사이에 명실상부한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1934년 10월 무렵 평양을 필두로, 이듬해 2월에는 신천, 4월 원산과 김천, 그 뒤를 이어 개성과 함흥에 지회가 설치되었다. 회원수도 급증하여, 창립 당시의 발기인 100여 명에서 1934년 4월까지 1년이 채 못되는 사이에 25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¹²⁸⁾ 이러한 전국적 호응에 힘입어 1935년의 과학데이는 제1회보다 더 대규모로 치러졌다. 과학데이 당일 전국 90여 지역에서 선전포스터, 배라 등을 30여만 매 살포하였고, 이미 과학지식보급회의 지부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각 지회 주최로 기념강연회, 발명가 표창식 등의 다양한 행사가 벌어졌다.¹²⁹⁾ 과학지식보급회는 과학데이 행사 외에도 대중적인 강연회를 경성과 지방 각지에서 자주 개최하였고, 평이한 과학지식보급서인 '科學讀本' 편찬사업, '科學노래' 현상모집 등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였다.¹³⁰⁾

이와 동시에 발명학회도 꾸준히 성장하였다. 1935년 초 회원 120명을 확보하여 이미 안정된 단체로서 자리잡은 발명학회는, 1936년 4월에는 226명, 1937년 말에는 400여 명의 조선인 발명가들이 결집한 단체로 성장하였다.¹³¹⁾ 학회의 일상 사업은 조선인 발명가들의 특허수속을 實費로

127) 현원복, 앞의 글(주4), 277-278.

128) 이 숫자는 김용관이 1935년 4월의 과학보급좌담회에서 보고한 것이다: 「과학보급좌담회」,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29.

129) 제2회 과학데이 행사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35년 4월 19일; 「조선과학운동의 과거일년간 경과보고」,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27-28; 「지방에서도 과학데이기념 호응선전」,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32를 볼 것.

130) 과학지식보급회가 1934년, 35년에 벌인 사업들의 내용은 「조선과학운동의 과거일년간 경과보고」,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24-28에 정리되어 있다.

131) 발명학회 회원 수는 각각 김용관, 「조선인 발명계의 총황」, 『신동아』 1935년 1월호 65; 「동아일보」 1936년 4월 21일, 1938년 1월 1일.

대행해 주는 것이었는데, 발명학회의 재건으로부터 1936년 4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발명학회를 통해 특허 수속을 시도한 건수는 338건에 이르러 학회의 일상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²⁾ 이와 함께 발명학회는 '발명가 표창식'과 '발명품전시회' 등 발명장려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였다.¹³³⁾

그러나 이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발전하던 과학운동도 1936년 무렵부터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징후는 발명학회보다도 과학지식보급회에서 먼저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학지식보급회의 기관지 「과학조선」이 1936년 신년호의 발간을 끝으로 정간상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과학조선」이 이미 적자상태에서 발간되었던 점으로 미루어,¹³⁴⁾ 이는 아마도 보급회의 재정 상황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¹³⁵⁾

그러나 본격적인 위협은 외부로부터 왔다. 처음 몇 년간 큰 간섭없이 과학지식보급회와 발명학회의 대중적 활동을 용인해 주었던 총독부가 점차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하였다.¹³⁶⁾ 1937년 과학데이

행사는 모든 형태의 옥외행사가 금지되었고, 앞서 살펴보았던 발명전람회도 일본인의 발명품을 공동으로 전시한다는 조건 하에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¹³⁷⁾ 이는 당시 사회 전반의 군국주의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36년 남차랑 총독의 부임 이후 '一視同仁, 內鮮一體' 등으로 대표되는 군국주의적 동화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개전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학지식보급회의 활동도 점차 위축되어, 1937년 이후부터는 긴 동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까지 발명학회와 과학지식보급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던 과학데이 행사는 1938년에는 발명학회 단독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행사 자체도 대규모 옥외집회는 기획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 선전탑, 발명품 특허출원법 강습회 등으로 대폭 축소하여, 김용관 등 과학운동의 주도자들조차도 자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¹³⁸⁾

반면 발명학회는 그 자체가 운동단체라기보다는 발명가들의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과학지식보급회처럼 급속히 쇠퇴하지는 않

132) 『동아일보』 1936년 4월 21일.

133) 1936년 발명가표창식 관련 기록은 『동아일보』 1935년 5월 22일과 『동아일보』 1936년 3월 12일, 1937년 발명품전람회에 대한 기록은 김용관, 「발명조선의 최근 약진상(완)」, 『동아일보』 1938년 1월 20일에 실려 있다.

134) 김용관이 1935년 과학지식보급회 이사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과학조선」의 발간비 약 260원 중 광고비와 잡지 판매대 등의 수입을 제하면 240여 원의 적자를 보였다고 한다. 「과학지식보급회회록」,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41-42.

135) 원래 과학지식보급회는 회보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대다수 회원들은 회비납부에 성실하지 않았다. 1935년 7월 보급회의 간사 김희명은 고문자를 맡고 있던 여운형을 방문한 자리에서 회비징수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김희명, 「본회 원문 방문기」, 『과학조선』 1935년 8월호, 25). 따라서 보급회 운영은 몇몇 충실한 후원자의 기부금에 의존하였다. 예를 들어 1935년 과학데이 행사 비용 890여 원에서 윤치호, 이인, 박길룡, 박준호 등 4인이 낸 회비 170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여 원은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후원금으로 충당되었다(「제2회 과학데이 재무보고」,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40). 또한 김용관의 보고에 따르면 보급회의 일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부분 이인 개인에 의존하고 있었다(「과학지식보급회회록」,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41-42). 이처럼 원래부터 불안정했던 보급회의 재정적 상황이 1936년 무렵에는 어떤 이유로 「과학조선」의 발간을 위한 여유도 없을 만큼 악화되었던 것 같다.

136) 총독부의 간섭은 1935년에도 있었다. 경찰당국은 7월 5일 과학지식보급회와 발명학회가 공동개최한 발명강연회의 집회를 중지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주체측과 경찰당국과의 교섭이 있었는지, 얼마 뒤인 7월 17일 거의 같은 내용의 강연회가 丁茶山逝去百年 기념강연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최되었다. 『동아일보』 1935년 7월 5일, 7월 18일.

137) 현원복, 앞의 글(주4), 263.

138) 1938년 과학데이를 계획한 발명학회 이사회 기록은 『동아일보』 1938년 3월 9일을 참조할 것.

있고, 오히려 앞서도 보았듯이 회원수가 1938년 초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나아가 발명학회는 1937년까지 조선 내의 발명이 다로서 거의 독으로 군림하고 있었다.¹³⁹⁾ 그러나 1937년 하반기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그해 6월 26일 발명학회의 강력한 경쟁상대로서 곧 그를 압도하게 될 제국발명협회조선지부(이하 조선지부로 약함)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이 단체는 조선공업협회, 경성상공회의소, 공정회조선지부 등 일본인 중심의 상공단체의 주도 아래 조선총독부의 후원으로 창립되었다.¹⁴⁰⁾ 회장에는 총독부측의 내정을 받은 京城商議 會頭 賀田直治가 선출되었고, 그 외 35명의 임원에는 경성방직사장, 중앙시험소의 안동혁 등 4인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이 선임되었다.¹⁴¹⁾

제국발명협회 조선지부의 설립 이후, 적어도 전사회적인 발명장려사업에서는 조선지부가 발명학회를 압도하게 되었다. 조선지부는 창립된 바로 그해 10월 조선공업협회 주최의 발명장려전람회를 공동 개최하였고, 이듬해 10월에는 자체적으로 이를 개최하였다.¹⁴²⁾ 뿐만 아니라 발명상담소 설치, 발명간담회 개최, 우수발명가에 대한 발명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일상활동을 벌였다.¹⁴³⁾ 반면 발명학회는 자신이 주축하였던 발명품전람회

와 우수발명가 표창식을 더 이상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1937년 4월 발명학회 주최의 전람회를 총독부 상공장려관에서 열도록 허가해 준 바 있었던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일본인이 주도하는 단체가 창립된 상황에서 이를 제쳐두고 조선인 발명가단체를 후원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발명학회는 1938년 과학데이에도 발명가표창식을 거행하려 했으나,¹⁴⁴⁾ 이를 개최하지는 못하였다. 10월 1일 발명학회의 창립기념식은 '시국을 감안하여' 김용관, 원익상, 이인 등 몇 명이 조출한 회합을 갖는 정도로 치러졌다.¹⁴⁵⁾

1938년 하반기부터 엄혹한 사회분위기와 제국발명협회 조선지부 설립 등으로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따라 기존의 과학지식보급회와 발명학회도 친일적 재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과학지식보급회는 1938년 12월 3일의 정기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친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¹⁴⁶⁾ 우선 1933년 이래 발명학회와 과학지식보급회의 실질적 후원자요 활동가였던 이인의 명예직인 고문으로 추대됨으로써 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났고, 그 대신 이미 친일화한 원익상 목사가 부회장직에 선출되었다. 또한 친일관료 김대우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김대우는 경성고공 졸업자로서 1919년 3.1

139) 발명학회 외의 발명가 단체는 2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일본인들의 조선발명협회와 물산장려회의 고려발명협회가 있었다. 이 중 고려발명협회는 1932년 6월 김용관 등이 이탈한 뒤에도 명제세의 주도로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갖는 등의 활동을 벌였지만(『동아일보』 1932년 12월 23일), 얼마 가지 않아 해체된 듯하다. 조선발명협회는 1930년대 초 민주사변을 계기로 만선조선협회로 확대된 듯하나 그 이후 뚜렷한 활동을 벌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오직 발명학회만이 지속적인 발전과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140) 제국발명협회 조선지부의 창립과정에 대해서는, 제국발명협회조선지부, 『我國に於ける發明界の推移と朝鮮』(1939), 109-124를 참조할 것.

141) 임원 명단은 같은 책, 223-224. 총독부가 회장선거에 간여한 사실은 『동아일보』 1937년 6월 27일에 실려 있다.

142) 1937년과 1938년의 발명장려전에 대해서는 제국발명협회조선지부, 앞의 책, 131-197을 참조할 것.

143) 각각 『동아일보』 1937년 7월 3일, 8월 30일, 1938년 10월 8일, 11월 14일을 참조할 것.

144) 『동아일보』 1937년 12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발명학회 이사회에서 발명품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듬해 과학데이 행사 때 발명가표창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을 것이다.

145) 『동아일보』 1938년 10월 2일.

146) 과학지식보급회의 정기총회 기록은 『과학조선』 1939년 3월호, 52에 실려 있다.

운동 당시 경성고공의 대표였고 1920년에는 공우 구락부의 일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으나, 九州帝大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뒤 총독부 생활을 시작하여 1936년에는 학무국 사회교육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철저히 일본체제에 편입된 경력을 밝은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1937년 말부터 전조선인이 암송해야 했던 '황국신민의 서사'의 입안자였다고 한다. 과학지식보급회는 군국주의 이념의 적극적 제창자요 선전자를 영입했던 것이다.¹⁴⁷⁾ 원익상 등 보급회의 임원들은 이듬해 2월 4일의 역원회의에서, 과학지식보급회를 '국민정신총동원명'에 가입시키기로 결의하는 한편, 일본정신 강조주간에는 '과학보국'에 관한 라디오 강연을, 제6회 과학데이 행사에는 '시국대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일본의 군국주의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보급회를 변화시켜 나갔다.¹⁴⁸⁾

발명장려사업의 주도권이 제국발명협회 조선지부로 넘어가고 과학지식보급회가 친일화하자, 조

선인 발명가만이 단체였던 발명학회가 존재할 공간은 점차 좁아졌다. 1940년 무렵 발명학회와 멜수 없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김용관이 발명학회와 과학지식보급회의 활동에서 손을 떼고 황해도 재령의 명신중학교 교사직으로 물러났다.¹⁴⁹⁾ 또한 과학지식보급회의 기관지 「과학조선」에는 발명학회에 대한 소개 기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제국발명협회의 활동이 상세히 보도되었다.¹⁵⁰⁾ 발명학회의 가장 주도적인 활동가였던 김용관의 이탈은 곧 학회 자체의 몰락을 의미하였다. 1940년 12월 26일 과학지식보급회와 발명학회는 합동이사회를 열어 양 단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과학보급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기로 결의하였고, 발명학회의 기능은 이 단체의 한 부서인 발명장려부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실상 발명학회가 과학지식보급회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였다.¹⁵¹⁾ <계속> **발특9705**

신 간 안 내

부정경쟁방지법

저 자 : 황 의 창
 규 격 : 국판 424면
 출 판 : 세창출판사
 가 격 : 15,000원

지적재산권법

저 자 : 윤 선 희
 규 격 : 국판 462면
 출 판 : 세창출판사
 가 격 : 16,000원

147) 김대우와 3.1운동에 참여한 경성고공학생들에 대한 심문기록은,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5」(1991), 15-136, 김대우의 친일 활동에 대해서는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 99인」 1 (돌베게, 1993), 279-287을 참조할 것.

148) 「과학지식보급회 제1회 역원회의」, 「과학조선」, 1939년 3월호, 15.

149) 이는 당시 「과학조선」에 기고한 글의 필자 소개를 통해서 확인된다: 김용관, 「壽瓦斯에 대하여」, 「과학조선」, 1940년 4월호, 30-32.

150) 「숨은 발명가를 위하여 발명발견상담소-동경 과학박물관내에 설립」, 「과학조선」, 1940년 4월호, 51-52. 이 글은 제국발명협회의 조선지부와 함께 동경본부 및 일본 각지의 지회의 사업에 한 소개를 담고 있다.